

# 온라인환경에서의 AACR2R과 KCR3의 기술부의 문제점

##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AACR2R & KCR3 in Online Catalog

이 명 규, 대불대학교 도서관

Lee Myoung-Gyu, Daebul University Library

KCR3과 AACR2R이 온라인 환경 즉, 온라인 목록에 부합되도록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두법과 약자, 즉 몇몇 구두법에 대한 재정리 및 약자에 대한 완전철자 사용, masterfile에서의 청구기호의 위치, 서명저자사항에서 공저서 및 공저자 등의 생략없는 완전한 나열, 주기사항에 내용 및 목차주기의 제공, 표목지시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의 부출 등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목록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편목규칙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 서론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기술규칙은 한국목록규칙3(이하 KCR3로 통용함)과 영미목록규칙2(이하 AACR2R로 통용함)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한 AACR2R과 KCR3의 온라인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기술부에 대하여 AACR2R과 KCR3에 있어서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AACR2R의 체계에 따르기 위해서 Tucker가 말한 내용을 그 역순으로하여 우선 구두법과 약자의 문제, 청구기호의 문제, 서명저자사항의 문제, 표목지시사항의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순서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 구두법과 약자

카펜터(Carpenter)가 말한 '목록기술법에 있어서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분명히 이용자들의 불만이 아니라 목록편찬자들의 불만이고, 또한 현재의 AACR이나 MARC가 과거 약 20년 동안의 온라인카드목록을 기초한 서지기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2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목록에서 이용자들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서지기술 양식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카드목록의 경우보다 훨씬 더 검색하기에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필요에 따라 카드목록 생산양식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생략한다면 AACR2R이나 MARC는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목록편찬자들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카드목록은 서지기술사항에 나타난 구두점이 생소하고, 특히 마침표, 빈칸, 붙임표, 빈칸(. -- )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발행사항이나 형태사항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 목록의 이용자용 화면을 보면, 카드목록의 경우와는 다르게 각각의 서지기술사항 앞에 마침표, 빈칸, 붙임표, 빈칸(. -- )의 구두점이 없이 기술항목마다 기술사항을 표시해주고, 사항마다 문단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ISBD의 구두법 중에서 특히 마침표, 빈칸, 붙임표, 빈칸(. -- )의 구두점은 카드목록이나 책자목록에서는 필요하나 온라인목록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기타의 모든 구두점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로울리(J. E. Rowley)는 "AACR2

는 많은 규칙과 페이지를 구두점에 할애하고 있다. OPAC에 있어서 구두점은 브라우저에는 필요할 지라도 검색에 있어서는 중요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며, 온라인환경에서의 구두점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따라서, AACR2의 구두점에 관한 보다 간명한 안내지침서를 마련하여 좀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ISBD의 구두점은 일반적인 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구두점을 모든 사항이나 세부사항의 앞에 둔다는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이용자들에게 친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견상으로는 ISBD의 구두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자면 콤마( , )와 피어리어드( . )단을 구두점으로 삼고, 나머지의 대동기호( = ), 콜론( : ), 사선( / ), 세미콜론( ; ), 앰퍼샌드( & ) 및 더하기기호( + ) 등의 기호는 모두 각 사항이나 세부사항의 앞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기호(Precedence code)라고 명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양서를 대상으로하는 AACR2R의 경우 edition이나 edited를 ed.로, revision이나 revised를 rev.로, compilation이나 compiled를 comp.로, translation이나 translated를 tr.로, illustration이나 illustrated를 ill.로 표현해 왔다. 이들 약자들 중에서 다만 ed.만이 辭典에 나타나 있으나 ed는 Education의 약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혼 혼될 가능성도 있고, 더구나 기타의 약자들은 일반적인 통용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약자들은 종래의 카드목록에서 카드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목록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자 이외에 이상과 같은 약자의 사용을 금하고 완전철자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서의 경우는 '개정판', '개정증보판', '권', '역', '옮김', '삽도' 등과 같이 단어의 길이가 짧아서 약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본래대로 표기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 II. 청구기호

카드목록에서 좌측 맨 앞에 기술되었던 청구기호가 온라인목록에서는 기술사항의 맨 뒤에 기술한 것은 아주 합리적인 개선이다. 목록이용자들의 검색의 접근점은 저자나 서명이나 주제명 등으로서, 그 밑에 기술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 자료가 필요하면 이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청

구기호는 자료의 소재위치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청구기호를 맨 뒤에 기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사무용 및 편목업무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목록의 master file화면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기록된 순서와 내용이 카드목록에 있어서 기본저록에 기록된 순서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001부터 049까지는 목록기술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들을 생략하고 보면; 056에서 기록된 것은 KDC번호, 082는 DDC번호, 090에 기록된 사항은 청구번호, 100은 기본표목, 245는 서명저자사항, 250은 판사항, 260은 발행사항, 300은 형태사항, 700은 주기사항, 950은 가격표시이다.

이와 같이 MARC의 master file 기본구조가 실제로 카드목록의 기본구조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MARC는 기본적으로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카드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포맷으로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환경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목록의 이용자화면에 부합되도록 하자면 우선 청구기호는 맨 뒤로 가도록 하고, 기본표목은 부출표목지시사항 바로 앞에 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이든 부출표목이든 기술사항의 상부 맨 앞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검색의 접근점으로서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기본표목은 그것이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어 분류번호와 더불어 자료의 서가배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목지시사항 중에서 맨 앞에 오는 것이 바람직할 뿐이다.

## III. 서명저자사항

온라인목록이 카드목록에 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 이외에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된 가장 큰 장점은 보움(Boume)이 말한 바와 같이 "카드목록의 경우처럼 지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서지기술을 사항별로 별도의 독립된 문단으로 기술할 수 있고, 각각의 문단 사이의 행간도 넓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짐을 고려해 볼 때 서명저자사항에서는 서명이나 부서명이나 여타서명정보나 대등서명 등의 기재방식에서는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저자표시에서 여러 저자의 공저서의 경우 카드목록에서 지면의 제한 때문에 세 사람까지의 공저서에 한해서 기술사항에 기입하고,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는 그들 중에서 첫째

리에 기재된 한 사람만 기입하고, 나머지 저자는 저자표시에서 생략하는 동시에 부출표목으로도 내주지 않았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AACR2R에서는 “만일 단일의 저자 표시가 . . . 4인 또는 4단체 이상이 기명되어 있으면, . . . 첫 번째 저자를 제외하고 모두 생략한다. 생략기호( . . . )로 생략을 나타내고, *et al.*(혹은 비로바체로서 동등하다는 표시)을 첨가하고 각괄호( [ ] )로 묶는다”(1.1F5)고 하고 있다.

또한 KCR3에서도 “(共著書의 著者表示) . . . 著者が . . . 넷 이상일 경우에는 그 첫著者 또는 代表著者만 기재하고, 나머지 著者の 기재는 생략하여, 東書는 ‘외’(또는 ‘外’)字를, 洋書는 석점줄임표( . . . )를 친 다음 ‘*et al.*’을 각괄호( [ ] )로 묶어 표시한다.”(1.1.5.9)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상과 같은 경우 공저자이거나 공편자이거나 공역자이거나 그 저작에 대한 공헌자들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래 공저자나 공편자나 공역자는 세 사람까지만 기입한다는 기준이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는 공동연구나 공동저작이 많아지고, 특히, 특정한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각 학과의 창립 기념논문집이나 주요한 학자들의 회갑, 정년, 또는 古稀기념논문집 등은 단행본으로서 심도 있는 논문들이 수록되는데 이들 저작이나 논문들이 온라인목록에서도 누락되고, 주로 주제별 저널을 대상으로 하는 색인에서도 누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은 死藏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사람 이상의 공저서의 경우도 저자명을 모두 자료에 쓰여진 문자와 순서대로 기술사항에 기술해야 한다.

#### IV. 주기사항

서명저자사항 다음의 판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洋書의 경우, edition을 ed., revised edition을 rev. ed., compiled를 comp. 등으로 약자를 쓰던 것을 이제 완전철자로 써야한다는 점이다.

발행사항에서도 온라인환경에서는 역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현재 洋書의 경우, 지명이나 회사명등에서 New York을 N. Y., Company를 Co.등으로 약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기사항에 있어서도 AACR2R이나 KCR3에서 모두 상세히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준수했을 경우 주기되는 내용의 분량이 많아서 카드목록의 경우는 그 지면의 제한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자들의 열람목록에는 수록

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주기는 20가지나 30가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들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기술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주기를 기록하고, 표목지시사항까지 기술하자면 카드목록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혹 주기까지는 가능하다 할 지라도 이러한 내용목차가 접근점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이용자들에게는 거의 무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온라인환경에서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기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주기는 각각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표목지시사항에서 ‘저자명 - 논제’, 그리고 ‘논제 / 저자명’의 표목지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자나 개정자나 삽도자 등 이른바 제2차의 저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한편, AACR2R이나 KCR3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접근점 및 정확한 문헌 제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단일 저자의 단행본에서도 목차주기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주기내용이다. 그리고, 이 목차주기 또한 각각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표목지시사항에서 표목지시를 해야 한다.

#### V. 표목지시사항

AACR2R에는 표목지시사항에 대한 규칙이 없이 다만 LC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AACR2R은 현재도 main entry개념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본표목은 이미 표출되어 있으므로 다만 부출표목만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대략 주제명, 분류번호, 서명, 공저자, 기타 부차적 저자 등의 순이다. 한편 KCR3에는 ‘標目을림指示’라는 별도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표목지시사항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

이상의 요지는 첫째, 표목지시사항은 기술사항의 맨 밑에 한문단으로 기술한다는 것이고, 둘째, 서명을 기본표목으로하되 서명표목의 문자와 형식이 기술부의 그것과 일치할 경우(예를 들면 書名이 漢字가 아니라 한글로 쓰여진 경우) 서명표목을 위한 표목지시는 생략한다는 것이며, 셋째, 기본저록에만 표목지시를 준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첫째와 셋째의 사항은 당연한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다만 핵심사항은 둘째의 것으로 이것은 서명을 기본표목으로하고 기본표목에 대한 표목지시는 생략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본표목에 대한 표목지시를 생략한다는 것은 LC의 main entry 관행으로서 이미 모든 저록에 기본표

목이 주어져 있으므로 다시 표목지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1년 국제편목원칙회의(ICCP)에서 채택한 '체원칙에 관한 성명' 이후 현재까지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한다는 것이 국제표준이므로, 이것은 국제표준에 역행하는 것이다.

온라인환경에서는 표목지시사항은 master file에 한하는 것이지만, 현재 표목지시사항에는 부출지시사항만 열거되고 있고, 기본표목은 저록의 맨 앞 100의 자리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main entry개념의 카드목록을 전제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환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본표목도 다른 부출표목과 함께 표목지시사항에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만 기본표목은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분류번호와 함께 자료의 서가배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첫머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이다.

표목지시사항에는 종래의 카드목록의 경우와는 달리, 부출표목이나 분출표목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라인환경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획기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카드목록의 환경에서는 부출표목이나 분출표목이 많아지면 많아지는만큼, 즉 접근점이 많아지는만큼, 저록의 카드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4인 이상의 공저서의 경우 기술사항에서 뿐만 아니라 부출과 분출을 제한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환경에서는 일단 한 저록에 대한 master file만 작성되면 표목의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카드목록의 경우처럼 file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뚜렷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실상을 토대로 하여, KCR3과 AACR2R이 온라인환경에 부합되도록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목록에서는 기술항목마다 맨 앞에 기술사항을 표시해주고, 사항마다 문단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므로 온라인목록에서는 기술사항의 문단구분이나 구두법은 합리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 온라인목록에서는 청구기호를 맨 뒤에 기록하고, 기본표목지시는 부출표목지시사항 바로 앞에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온라인목록에서는 카드목록의 경우처럼 지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지기술사항별로 별도의 독립된 문단으로 기술

할 수 있고, 각각의 문단 사이의 행간도 넓게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저자의 공저서의 경우도 저자명을 서지기술사항에 모두 기술하고, 각 저자의 분담표시가 명확한 경우는 주기사항에서 저자명과 논제를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단일저자의 저작도 가능한 한 주기사항에 주요한 목차를 기술하여 이용자들이 그 저작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온라인목록에서는 모든 저자가 검색의 접근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저자에 대해서 '저자명-키워드'(또는 논제)로 복식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수용해야만 국제표준화시대의 온라인목록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편목규칙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3.1판(기술.표목.올림지시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0.
2.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Second edition revised, Chicago, ALA, 1988.
3. Carpenter, Michael. "Does Cataloging Theory Rest on a Mistake?" in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ited by Richard P. Smiraglia(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a, pp. 35-102.
4. ———. "The Narrow Rugged, Uninteresting Path Finally Becomes Interesting: A Review of Work in Descriptive Cataloging in 1991 with Trail Marks for Further Research,"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6(3), 1992b, pp. 291-315.
5. Fattahi, Rahmatollah.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Howorth Press, Vol. 20(2). 1995.
6. Gorman, Michael, "Searching for the Green Light: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Cataloguing Australia* 17(3/4), 1991b, pp. 31-36.
7. Rowley, J. E. Towards AACR3 : A Review of the Implication of OPACs for Cataloguing Codes and Practices. *Library Review*, vol.38, no. 3
8. Tucker, Ben R. "Interpretation of 1988 Revision,"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it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 pp. 39-42.